

## 교회는 둥근 식탁입니다

요한복음 17:19-26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사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며 마음을 열어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한 가족이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순수한 사랑을 나누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과 그의 사랑을 믿고 느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친교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도 아니고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함께 소유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낯선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같고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 온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과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하나이었던 하나님의 가족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하나가 되었고, 우리끼리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였고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별과 연령과 빈부를 초월하여 그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믿으며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고별설교를 하신 후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 장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에 두고 갈 제자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장차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뜻은 주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기 전 날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년 기독교 역사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맺어지고 있습니다.

##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영국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Fred Kaan 이 쓴 "The church is like a table" 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곡이 있습니다. 교회를 둥근 식탁으로 비유한 찬송입니다. 교회는 식탁과 같은데 그것은 사각모양이 아니라 둥근 원형으로 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쪽이 없고 모퉁이도 없으며 첫째도 나중도 없고 특별히 높음도 없습니다. 이 식탁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됨과 사랑 안에서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의 내용입니까? 우리 편과 상대방으로 편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상석과 말석이라는 차별이 없는 둥근 식탁이 곧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를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하나' 라는 의식과 사랑 안에서 퐁퐁 묶여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테이블의 어느 좌석에 앉아야 할지 빨리 판단이 서지 않아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석과 말석의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리를 안내해 주지 않아 눈치 없이 아무 자리나 먼저 앉으면 자칫 실수하기 쉽습니다. 나보다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만일 그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 먼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죄송스럽고 무안한지 모릅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망서려 질 때마다 영국의 전설의 왕 아더가 만들었다는 원탁이 생각납니다. 그는 기사들의 우위다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는 둥근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회의장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상석과 말석의 자리가 차별 없는 둥근 식탁입니다.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된 사람을 사랑과 이해로 품어줍니다. 나중 된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주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나의 편도 너의 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한 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는 이 교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의 눈에 보이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 뿐 아니라 지금 출타중이라 이 자리에 없는 모든 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오래 전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에 익숙하며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 섬기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며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즐거움으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오래 남아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함께 섬기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귀한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묶여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는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 집의 둥근 식탁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열심 있는 분들만 있나요? 솔직히 말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보기에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걱정이 되고 아쉬움을 주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마음이 쓰입니다. 조금 더 믿음생활에 열심을 내어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이런 마음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연령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목사가 보기에든 여러분이 모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교회가 식탁과 같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된 만찬회에 가보면 잘 차려진 식탁에 좌석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의 이름표가 서열에 따라 식탁에 놓여 있고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앞 정면에 나란히 앉게 되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먹고 마시며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또한 거기에는 초청된 사람이 아닌 불청객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진 집에 차려진 식탁과 같습니다. 그 식탁은 복잡한 의례와 절차에 따른 자리 배정이 없고, 누구나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열려진 초청의 자리입니다. 문이 열려진 집의 그 식탁에서는 더 이상 '그들' 과 '우리'의 구분이 없고 '우리' 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교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라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 안에 들어와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집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1)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 7:37,38)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생수로 제공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으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도 마르다가 준비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음식을 드시며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에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음식을 드시며 마지막 설교를 하였고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며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식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하시며 마음 문을 굳게 잠가두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실 뿐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하나가 되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닌 우리가 되어 함께 즐거운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열린 집의 식탁이며 이 식탁은 누구나 들어와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는 초청의 상징입니다. 우리 샌안토니오 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열려진 집의 식탁과 같은 교회이길 바랍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으며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열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을 찾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하는 식탁, 모가 나지 않고 높고 낮음이 없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나 우리가 되는 둥근 식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